



저소득층 120만명 암 무료검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120만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100만명에게 4대 암 검진이 무료로 이뤄졌고, 올해에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장암이 추가됐다.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보내준다. 대상자는 안내문과 의료급여증 등을 갖고 안내 받은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2004. 4.9)

"담뱃값 5천원 되면 흡연자의 55.6% 금연"

보건복지부 용역 조사 결과

우리나라 흡연자 100명 중 37명꼴은 담뱃값이 대폭 오르더라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려는 '골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경우 담뱃값이 5천원을 넘어서면 금연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가격 인상과 자원 활용 방안'이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김 교수팀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흡연자 800명, 비흡연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매년 500원씩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중심으로 금연연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 그 효과가 별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담배가격에 대해 흡연자는 '비싸다' (46.8%), '적당하다' (46.9%) 등으로 응답한 반면 비흡연자 내에선 '싸다' (30%)와 '비싸다' (29%)가 팽팽히 맞섰다.

또 현재 2천원인 담뱃값이 2천500원으로 인상되면 흡연자의 9.4%가, 5천원으로 인상되면 55.6%가 각각

금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자의 36.6%는 담뱃값이 7천원 이상 돼도 담배를 끊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성인남성 흡연율이 현재의 61.8%에서 1.7~3.4% 포인트 하락하고, 여기에 500원을 추가 인상하면 3~6% 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김용익 교수는 "담뱃값이 20% 이상 인상돼야 금연 확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담배가격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흡연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4.21)

하루 알코올 30g 이상 규칙적 - 대장암 위험 21% 커져

하루 알코올을 30g 이상 규칙적으로 과다하게 술을 마시면 결장암·직장암 등의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상당히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미국 내과학연보에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 조은영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하루에 30g 이상의 알코올, 예를 들면 소주 반 병 이상을 규칙적으로 마신다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45g 이상을 마시는 것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51% 더 늘리며, 30~45g을 마시는 것은 위험을 21% 더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남녀의 구별 없이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대장암의 발생위치와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술 종류에도 차이가 없어 맥주, 와인, 증류주에서 다르지 않게 나와 알코올을 그 자체가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 박사는 미국과 유럽의 8개 연구결과를 종합해 관찰한 50만명 가운데 4,687명의 대장암 환자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밝혀냈다.

(한겨레신문 2004. 4.20)

"아기 때 TV보면 주의력 장애"

아주 어린 나이에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한 어린이는 취학연령이 됐을 때 주의력 결핍장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애틀 아동병





원지역의료센터가 1살과 3살짜리 어린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 시청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들이 7살이 됐을 때 주의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10%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2시간 TV를 시청한 37%는 전혀 TV를 보지 않는 아기에 비해 주의력결핍장애가 생길 위험이 10~20%, 매일 3~4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14%는 위험이 30~40%로 높아졌다.

(MBN뉴스 2004. 4.5)

“반주가 몸에 좋다” 속설은 틀려

하루 두 잔 정도의 소주를 반주로 마셔도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의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윤영숙 교수는 1998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알코올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윤교수팀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 하루 2~3잔 정도의 반주를 하면 고혈압은 1.5배, 중성지방은 1.4배 가장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양의 반주를 마신 여성들도 고중성지방혈증 2.2배, 당뇨병 2.1배, 고혈압 1.8배, 복부비만 1.7배 등으로 질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6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윤교수는 “반주가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결과 하루에 두 잔 이상의 소주를 마신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주가 누적될수록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2004. 4.14)

“암 발병 5명중 1명은 흡연이 원인”〈日 조사〉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본 당국의 조사가 나왔다고 언론들이 24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이 1990년부터 10년간 전국 40~69세의 남녀 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 결과, 이 기간 암에 걸린 숫자는 모두 5천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위암이 26.3%, 여성은 유방암이 17.7%로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평생 금연한 사람에 비

해 남성은 1.6배, 여성은 1.5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양이 적어도 장기간 흡연했을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본 전체에서의 암 발생률을 추산한 결과, 매년 48만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 가운데 남성은 29%에 해당하는 8만명, 여성은 8천명이 각각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후생노동성은 “담배로 인한 암은 폐암이 대표적인 지만 위나 결장, 간장 등에서도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4. 4.24)

체지방 많으면 임신중독 위험

임신 전 체중이 모체와 태아 모두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간전증(子癩前症-임신중독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맥기 여성연구소 연구팀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임신 전 과체중은 자간전증 위험을 2배, 비만은 3배 각각 증가시키며 임신 전 체중이 표준치 이하이면 자간전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자간전증 위험은 임신 전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지방조직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자간전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자간전증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자간전증을 연구하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일부 여성의 경우 혈장이 지방세포를 자극해 과도한 지방산과 다른 독성물질이 방출됨으로써 자간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영국 자간전증대책협회의 마이크 리치 회장은 이 연구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건전한 식사습관을 통해 체중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자간전증이란 임신 중 몸이 부으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뇨단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중앙일보 2004. 4.22)